

1. 방송독립과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언론 장악 시도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집권여당이 되자 수정안을 핑계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또한 국회 공전을 둘러싸고 여야는 방송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방송법은 정치권의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KBS를 공영방송답게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4. 이에 KBS 노동조합은 계열사 노조 위원장단과 중앙위원, 전국의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조건 없는 방송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전 11시
- ◎ 장 소 : 국회 2문 앞
- ◎ 연 락 : 총무실장 심인보 010-3542-1780 <끝>

**반복되는 언론장악,
조건없이 방송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하고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

박홍근 의원과 16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정권을 잡은 여당과 청와대의 입맛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악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여 KBS를 정치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KBS에서는 정치 독립적인 사장을 임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니면 보직과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보복성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재가가 나기 직전까지 양승동사장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떠한가? 그는 KBS 공영방송의 사장이 아니라 언론노조 위원장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사의 경우, 73명의 국장급 간부를 임명하는데 KBS 노조 조합원은 완전 배제되어 0%이며, 137명의 부장급 간부를 포함해도 KBS노조 조합원은 6%에 불과할 정도로 실력과 전문성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출신 성분만 갖고 보직을 주고 있다.

예를들어, 보도본부 국장급간부 10중 9명이 언론노조 조합원이며, 뉴스 앵커의 경우도 전원이 언론노조 조합원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가? 보도와 제작의 편향성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적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지난(8일) 양승동 사장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형사고발하였다.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작금의 KBS 상황은 왜 공영방송사장이 정치 독립적이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특별다수제로 여권과 야권이 동의하는 사장을 선임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양승동 사장은 반복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시청자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여당과 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 KBS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만 봐도 정치권력과 손을 잡은 KBS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

되어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중심을 잡아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다.

반복되는 언론장악,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8. 5. 18.

KBS노동조합, KBSN, KBS미디어,
KBS미디어텍, KBS비즈니스, KBS아트비전

